

## 朝鮮 初期 中國語 通譯 發展 背景에 관한 研究\*

- <朝鮮王朝實錄>의 記錄을 中心으로 -

박 중 연\*\*

<目次>

I. 서론	1. 政治 外交와 中國語 通譯
II. 中國語 通譯史에서 朝鮮 初期가 갖는 意義	2. 經濟와 中國語 通譯
III. 朝鮮 初期 中國語 通譯 發展 背景	3. 文化와 中國語 通譯
	IV. 結 論

### I. 서론

歷史는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이나 그 기록을 가리킨다. 우리는 過去로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기록 문서인 史料를 통해 사실을 認識하기 때문에,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史料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 특정한 분야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史料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 그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通譯” 분야가 그 중 하나이다. 언어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글이 아닌 말로써 이루어지는 업무의 특성과 통역관의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역사 기록에서 그들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 본 논문은 2015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학교 문리과대학 중국학부 부교수

않다. 게다가 통역에 대한 학문적 편견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黎難秋가 저술한 《中國口譯史》(2002)라는 책을 접하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어 通譯史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연구 과정에서 현재 남아 있는 문헌적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따라서 부득이하게 우선 특정한 시기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중국어 통역 역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중국어 통역 분야의 연구는 중국어 전공자 이외에도 國文學界와 史學界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國語學界에서는 譯官이나 譯學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고, 최근에는 글로벌화의 시대적 추세를 따라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譯官에 관한 저서들이 출간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 정책으로서의 譯學政策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과 譯學에 관해 학문적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國語學史의 관점에서 연구했다. 그 밖에도 譯學書와 譯科 試券 연구 등이 하나의 범주를 형성하면서 譯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다. 歷史學界에서는 주로 制度史的인 측면에서 譯官의 업무를 관장하고 교육을 담당했던 司譯院의 官職 體系와 그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sup>1)</sup>

본 논문은 共時的 관점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조선 초기라는 한 시기를 대상으로 중국어 통역사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역사의 매 순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는 중국어 通譯史에 있어서 政治, 經濟, 文化 方面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기였다. 중국어 通譯史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 《朝鮮王朝實錄》(이하 《實錄》으로 표기함)의 기록을 중심으로, 조선과 명나라를 이어 주는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했던 중국어 통역의 발전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實錄》은 조선시대 사회, 정치, 경제, 외교, 문화

1) 白玉敬, 《朝鮮前期 譯官研究》, 한국연구총서 제71집, 2006, 6쪽.

2) 본 논문에서 말하는 “조선 초기”는 15세기를 주 배경으로 한다.

등 다양한 분야를 기록한 책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아서 중국어 通譯 史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II. 中國語 通譯史에서 朝鮮 初期가 갖는 意義

학자에 따라서 歷史를 記述하고 나누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단계적 발전론의 형태를 취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중국어 通譯史를 기술하고자 한다면 과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서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는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있기 이전에도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共時的으로 단편적인 논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장에서는 조선 초기가 중국어 通譯史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간략하게나마 우리나라 중국어 통역의 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중국과의 교류에 직업적인 通譯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학계에서는 漢字가 들어온 시기를 중국의 戰國時代인 기원전 2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高句麗, 百濟, 新羅의 삼국시기인 6~7세기 무렵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당시 삼국이 中國과 외교문서를 주고받은 기록이 보이며,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漢字로 기록된 銘文이나 塔記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漢字가 어떻게 들어와서 발전했는지에 관한 문제와 중국어의 발전 역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 문헌에 외국어 학습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것은 《三國史記》에서 “又置 史臺 掌習諸譯語.”라고 한 것이다.<sup>3)</sup> 당시 秦封國의 弓

3) 《三國史記》 권12 新羅本紀 第十二.

裔는 904년에 국호를 ‘摩震’, 연호를 ‘武泰’로 바꾸고, 신라의 官制를 참작하여 官制를 정하고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국호로 정한 ‘摩震’은 ‘摩訶震旦’의 약자로, “摩訶”는 산스크리트어로 ‘크다’는 뜻이고 “震旦”은 중국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후에 ‘동방의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sup>4)</sup> 국호가 중국과 관련이 있고, 또한 “史臺”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외국어를 학습했다는 것은 후고구려가 대외적인 교류의 중요성 인식했으며, 비록 초보적인 단계였지만 국가 차원에서 외국어 학습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나마 史料를 통해 중국어 통역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泰封의 史臺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 다른 명칭의 기관이 외국어 교육을 담당했다. 고려시대의 통역 역사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고려 전기는 송나라와의 활발한 교류와 중국 내부의 혼란한 정세로 인해 통역에 대한 필요가 더욱 요구되었지만, 외교나 통역을 담당할 독립된 기구나 통역관을 따로 양성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국과 고려가 같은 漢字 文化圈에 속해 있어서 당시 지배층이 똑같이 儒學의 經書를 학습했기 때문에 서로가 의사를 전달할 때 漢字를 통해 筆談이 가능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통역의 중요성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학적으로 본다면 당시 중국이 사용하던 古官話와 고려 문신들이 알고 있던 漢文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외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고려 전기에는 사소한 업무 처리를 위한 소수의 역관 양성만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리고 唐宋 때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풍부했으며, 중국 국내의 내란으로 인해 귀화한 중국인들이 관료로 많이 발탁되었다. 귀화한 중국인들은 외교 문서의 작성과 사신을 접대할 때 통역으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고려 전기

4) 위키백과 참고.

는 외국어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도화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중국어 通譯史에 있어서 고려 전기는 여전히 초보단계 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譯官의 지위도 다른 技術學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고려 후기는 원나라와의 관계로 인해 譯官 양성에 변화가 나타난다. 원나라는 폐쇄적인 외교정책을 시행하여 고려의 유학생이나 민간의 교류를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로 통역 인원이 감소하게 되고, 국가 차원의 통역 인력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헌의 기록을 통해 정규적인 譯官 교육이 실시되었던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忠烈王 2년(1276)에 通文館이 생겨 외국어에 관한 사무를 맡았고, 뒤에 司譯院이 생겨 譯官의 교육과 譯科를 담당했다. 그리고 《高麗史》권77, 志 권31 “漢文都監[恭讓王三年, 改漢語都監爲漢文, 置教授官.]”이라고 한 것을 보면 고려 말에 漢語都監이 있었다가 漢文都監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역관 제도에서 나타나는 발전적인 모습은 조선 전기 역관의 사회적 지위의 바탕이 되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대외관계의 多元化와 명나라의 유학생 파견금지 조치는 역관 양성의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켰다. 또한 富國強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물도입을 위한 역관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었다. 따라서 조선 건국 직후부터 역관 양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sup>5)</sup> 명나라 초년 朱元璋이 즉위한 후, 빠르게 고려와 정식으로 宗藩關係를 맺었으며, 洪武 3년(1370)에 고려에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如有行修經明之士, 各就本國鄉試, 貢赴京會試, 不拘額數選舉.” 이것은 당시 고려인 중에는 명나라의 과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중국어 수준을 갖춘 사람이 있었다는 傍證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려는 중국어 학습과 중국 문화의 수용에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여러 차례 명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중국어를 전파하고 인재를 축적했는데, 《高麗史》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공부 상서 權鈞을

5) 백옥경 저, 《朝鮮前期 譯官研究》, 한국연구총서 제71집 참고.

명나라에 보내 신년을 축하하게 하였다. 舉人 朴實, 金濤, 柳伯濡가 그와 동행하였는데 金濤는 制科에 급제하였다.”<sup>6)</sup> 洪武 24년(1391)에, 고려는 漢語都監을 漢文都監으로 바꾸었으며, 또한 특별히 教授官을 두었다. 이것은 비록 고려가 이미 통치 말기에 들어섰지만, 정치적인 원인 때문에 중국어 학습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sup>7)</sup> 《실록》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통역과 관련된 개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세종 23년(1441) 上護軍 閔光美 등 60명이 올린 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신 등이 그옥이 살펴보옵건대, 우리나라는 三韓으로부터 高麗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大國을 섬겼으므로, 고려에서는 漢語都監과 司譯尙書房을 설치하고 오로지 華語를 익히게 하여, 그때에는 漢人이 우리나라에 와서 머무르는 자가 매우 많았고, 國初에 이르러서는 司譯院을 설치하고 龐和·荊華·洪楫·唐城·曹正 등이 서로 계승하여 가르쳤으므로, 이로 인하여 친히 배우고 익히게 되어 인재가 배출되었습니다.”<sup>8)</sup>

위의 기록을 보면 고려 말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는 중국인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고 통역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조선 초기에도 그들을 교수 인원으로 초빙하여 중국어를 지도했음을 알 수 있다.

14세기 말 朝鮮의 建國 당시 동북아시아의 政勢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가 기존 세력인 元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으며, 朝鮮은 李成桂가 易姓革命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존

6) “遣工部尙書權鈞如京師, 賀正. 舉子朴實·金濤·柳伯濡從行, 濤中制科.”(《고려사》 제42권, 世家 제42 공민왕 경술 19년(1370)).

7) 李龍, <論明清時期朝鮮李朝的漢語教學>, 曲阜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년 4월, 2쪽.

8) “臣等竊見我國自三韓至于高麗, 世世事大. 高麗設漢語都監及司譯尙書房, 專習華語, 其時漢人來寓本國者甚多. 至國初, 置司譯院, 如龐和、荊華、洪楫、唐城、曹正等相繼訓誨. 由是親炙習業, 人才輩出.”(세종 93권, 23년(1441) 8월 11일(을해) 3번째 기사).

립을 위해 事大交隣 정책을 선택했다. 事大交隣 정책은 先進文物을 받아들이고 朝貢制度를 官貿易의 창구로 활용하는 등의 實利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朝鮮 初期의 국내 외적인 政治·外交的 배경은 中國語 通譯史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국어 통역 양성 기관 司譯院의 건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당시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국가 중에서 명나라는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관 양성에 있어서도 중국어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아래의 기록은 태종 4년(1404) 인재 등용에 관해 司憲府에서 올린 상소문 중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실록》의 기록을 통해 조선의 건국 초기에 역관의 등용에 관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의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조정은 바닷가 僻地에 치우쳐 있어서 語音이 아주 다르므로, 譯官으로 인하여 通합니다. 그러므로 司譯의 직임은 진실로 중요합니다. 근래 司譯의 학습에 다만 漢語만을 익혀서 經史의 학문을 알지 못하여, 중국 사신의 말이 經史에 미치면, 慄然히 알지 못하여 응대하는 데 실수하니, 매우 국가의 羞恥가 됩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漢語를 잘하고 經學에 밝은 자를 선택하여 訓導官을 삼아, 힘써 후진을 깨우쳐 譯語에 널리 통하게 하고, 經學에 詳明하게 하여, 중국 사신의 뜻을 통하게 할 것입니다.<sup>9)</sup>

당시 역관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지만, 그들의 수준은 단지 어학만을 학습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에 학문적인 깊이를 갖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 파견된 通事들이 무시를 당하기도 했다.

9) “以小事大, 古今之通義也。況我朝僻處海陬, 語音殊異, 因譯以達, 故司譯之任, 誠爲重矣。近來司譯之學, 但習漢語, 而不知經史之學, 朝廷使臣, 有語及經史, 則慄然不知, 失於應對, 深爲國家之所羞。願自今, 擇善於漢語而明經學者, 爲(訓導)[訓導]官, 敦諭後進, 博通譯語, 詳明經學, 以達朝廷使臣之意。”(태종 8권, 4년(1404) 8월 20일(기축) 1번째 기사).

“.....중국 조정의 사람들이 通事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 환관의 족속보다 심하므로 그 불가함이 하나이고,.....”<sup>10)</sup>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어 이외에 經學에 대한 공부를 강화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시대적인 흐름과 제도적인 측면, 중국어 통역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조선 초기가 중국어 通譯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전과는 다른 말하기 위주의 외국어 교육 방식과 훈민정음의 창제가 중국어 통역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세종 때 창제된 훈민정음을 통해 중국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역관에게 중국어를 교육시킬 때에서도 직접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전 시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참고로 통역관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비단 조선뿐만 아니라 명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명나라는 홍무제부터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가 많아지자 국가적으로 통역관에 대한 필요를 느꼈다. 따라서 永樂 5년(1407)에 황제에 명에 따라서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통역관을 양성하게 되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당시의 조선에서 중국어 통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Ⅲ. 朝鮮 初期 中國語 通譯 發展 背景

통역은 외국과의 교류에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사람이며, 통역이 어떤 인물이나에 따라서 일의 성패 여부가 결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통역의 발전은 대부분 국가의 발전과 함께 하며, 분야도 政治, 經濟, 文化

10) “.....中朝之人, 其賤通事, 甚於宦官之族.....”(성종 46권, 5년(1474) 8월 29일 (신해) 4번째 기사).

11) 태종 8권, 4년(1404) 8월 20일(기축) 1번째 기사에서 인재등용과 행정원의 하부 이양 등을 건의한 사헌부의 상소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등 다양하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에서 조선은 명나라로 1,252차례의 사신을 파견하여 매년 평균 4.6차례나 사신을 보냈다.<sup>12)</sup> 사신의 파견 목적은 주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분야와 관련되어 있었다. 조선과 명나라의 정치관계는 이미 太祖 시기의 소원한 시기를 벗어나, 太宗 시기의 적응기를 거치면서, 상호 정치적 신뢰를 쌓고, 경제적으로 빈번하게 교류하며,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형적 朝貢冊封 관계 시기에 들어섰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선 초기 중국어 통역이 발전하게 된 배경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政治 外交와 中國語 通譯

미국의 James B. Palais 교수는 조선이 불리한 지리적 위치에 처해있으면서도 수백 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外交”의 덕분이었다고 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국 왕조는 한반도 왕조들에게 평화유지자이자 더 공격적인 약탈자들로부터의 보호자로 간주되었는데, 이런 관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당나라는 735년 이후 거의 150여 년간 신라를 보호했으며, 명나라와 청나라도 1368년부터 1644년까지 그리고 1644년부터 1894년까지 각각 그 역할을 수행했다. 중국에서 강력한 왕조가 쇠퇴했던 시기에 한반도는 강성한 이민족들은 침입에 직면해야 했다.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의 거란족·여진족·몽골족의 침략과 17세기 중반의 만주족의 침입이 그것이다.....”라고 했다.<sup>13)</sup>

조선의 입장에서는 易姓革命으로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가장 시급했던 것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명나라의 승인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명

12) 이 통계는 《明實錄》과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등의 사료를 근거로 산출해 낸 것임.

13) James B. Palais, “A Search for Korean Uniqueness” Harvard Journal of Asian Studies 55-2(December, 1995), 424-425쪽.

나라와 유화적인 정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반대로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조선을 어떤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다른 견해가 있다. 하나는 朱元璋이 조선의 사신 張子溫에게 “自古天下有中國，有外國，高麗是海外之國，自來與中國相通，不失事大之禮，守分的好有.”라고 말한 기록처럼 조선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sup>14)</sup> 이 기록에서 朱元璋이 조선을 중국과 대치되는 외국의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조선의 위치가 상당히 격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나라가 외국 사신을 대하는데 있어 조선의 사절들을 특별하게 대우했다는 여러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명나라는 조선의 사신들에 대해 “中朝待外國甚嚴，而待我國則甚親厚”라고 했다.<sup>15)</sup> 그러나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조선을 중국의 屬國으로 간주하며 중국과 동등한 지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역사 기록에도 자주 볼 수 있다. 명나라 시기 洪武 시기는 양국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던 시기였다. 朱元璋은 조선에 파견한 사신의 弑害문제와 邊境문제 등을 이유로 조선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초기 사신으로 파견된 조선의 관리들은 화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명나라가 조선을 어떻게 간주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건국 초기에 명나라와의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최대의 난제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명나라 조정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중국어 통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을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조선 초기 명나라와의 정치 외교관계와 통역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1392년 李成桂가 정식으로 朝鮮의 왕에 즉위하자, 바로 명나라에 사신단을 파견하여 명나라 조정의 승인을 얻고자 했다. 이에 명 太祖는 명나라가 절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또한 쌍방

14) 吳晗,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제4책), 中華書局, 1980, 26쪽.

15) 위의 책, 520쪽.

이 평화적으로 지내고자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는 朱元璋이 조선에 파견한 사신이 피살되거나 국경 문제, 조선의 외교 문서에 모욕적인 글이 포함되어 주원장이 크게 불만을 표하는 등 한동안 정치 외교적으로 불화가 있었다. 따라서 조선은 명나라와의 외교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으며, 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면서 조선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중국어에 능통한 통역이 필요했다. 그 결과 통역 양성기관인 司譯院이 설립되게 된다.

조선 초기 양국의 불안정한 정치관계가 우리나라의 중국어 통역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는 《실록》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선이 중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명나라와의 정치적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태조 6년(1397)의 기록을 보면 황제의 칙위 조서에서는 중국어를 모르는 사신은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 국왕의 지성인데, 지금 두 나라 사이에 수재(秀才)가 매양 농간을 부려 바르지 못하였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데는 매사에 정성을 다하고 정직하게 해야 할 것이니,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떨어지겠는가? 천하에는 한 개의 해가 있을 뿐이니, 해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대 나라에서 사신이 다시 올 때에는 漢話를 아는 사람을 보내고, 漢話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다. 우리 孫兒와 조선 국왕의 孫兒의 成婚하는 것을 승낙 할 때에는, 漢話를 아는 재상을 보내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여 돌려보내겠다. 먼저 온 4인의 秀才 중에서 權近만 술직해 보이기에 돌려보낸다. 이런 얘기를 조선 국왕이 그에게 말해 주라. 새로 온 세 사람 중 한 사람도 말을 할 줄 모르니, 그 몇 사람은 모두 돌려보낸다. 머물러 둔 4인의 行力은 한 번에 다 보내겠다.”<sup>16)</sup>

16) “.....朝鮮國王至誠，如今兩國之間，秀才每戲弄，不直不正。以小事大，事事都要至誠直直正正。日頭那里起那里落？天下只是一箇日頭，慢不得日頭。爾那里使臣再來時，漢兒話省的著他來，一發不省的不要來。我這裏孫兒，朝鮮國王孫兒做親肯的時節，著他漢兒話省得宰相來。我這裏說歸他。先來的四箇秀才裏頭權近看的老實，放回去。這話朝鮮國王說與他。那三箇新來的一箇饒不得。爾這幾箇都回去，留下的四箇行力，一發都將去。”(태조 11권, 6년(1397) 1번째 기사).

위 기록에서 새로운 세 사람은 바로 參贊門下府事 安翊·同知中樞院事 金希善·藝文春秋館學士 權近을 가리키는데, 權近의 경우 일찍이 李穡의 門下에서 修學했으며, 18세에 文科에 급제할 정도로 학문에 뛰어났다. 1389년에는 簽書密直司使로서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적도 있다. 이 기록에서는 정도전이 명나라 태조에게 바치는 찬표를 잘못 쓴 것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해명을 잘해 극진한 예를 받고 귀국했다고 한다. 것처럼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權近조차도 황제와의 대화는 주로 筆談을 통한 것으로 추정되며, 명 太祖가 통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을 보면 통역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그 이듬해 태조 7년(1398)의 기록에서는 郭海龍의 사례가 보인다. 태조 14권, 7년(1398년) 6월 3일(정미) 공부 등 3인을 京師로 압송하며 중국 禮部 侍郎에게 회답한 서신에서도 당시 통역관들의 중국어 수준을 엿볼 수 있다.

“郭海龍은 전혀 글자는 알지 못하고 중국말만 대강 익혔으므로, 그로 하여금 曹庶를 押送해 가도록 한 것인데, 某가 어찌 감히 그 사람에게 알아 보도록 명령했겠습니까? 某가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천지와 귀신이 어찌 이를 즐거이 용납하겠습니까? 供招 안에 指稱한 尹須·尹珪·孔俯 3인은 전혀 중국의 語音은 통하지 못하니, 비록 글자를 쓸 줄은 알더라도 또 글 뜻은 깊이 알지 못하므로 모두 일찍이 啓本을 맡아 쓰지 않았으나, 다만 이 사람이 함께 한 衙行해 있으므로 그를 指名한 것입니다.....”<sup>17)</sup>

기록에서 언급된 郭海龍은 조선 초기 通事로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그를 가리켜 “전혀 글자는 알지 못하고 그를 가리켜 중국말만 대강 익혔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국어 구사 능력

17) “郭海龍專不識字，粗習華語，俾押送曹庶去。某豈敢教他打聽？某若有此，天地鬼神，豈肯容之？招裏指攀尹須、尹珪、孔俯三人，都不通中國語音，雖會寫字，又不深知文義，並不曾管寫啓本，只是同在一衙行，以此指他。……”(태조 14권, 7년(1398년) 6월 3일(정미)).

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조선은 명나라와의 정치적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처해있었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나라와의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통역이 필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의 글은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譯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적인 통역관 양성을 주장한 《실록》의 기록이다. 세종 45권, 11년(1429년) 9월 6일(기유) 申商이 전문적인 통역관 양성을 위해 李邊의 등용을 아뢰는 것에서 당시 조선이 통역에 대해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알 수 있다. 당시 예조 판서 申商이 다음과 같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우리나라가 事大하는데 있어서 譯學보다 더 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司譯院의 生徒들은 다만 語訓만 익히고 文理를 알지 못하여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때나 우리나라의 사신이 명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통역이 잘못되어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sup>18)</sup>

육조 가운데 하나로, 예의 및 음악과 제사 및 연회와 외교, 교육과 과거에 대한 사항을 담당했던 예조판서 申商은 당시 조선의 외교정책 중에서 근간이었던 事大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을 “譯學”이라고 생각했다. “我國事大, 莫重譯學”은 당시 조선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신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서는 중국 국내 정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의 왕들은 중국의 정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사신들이 중국에 파견될 때, 국왕은 항상 사실들이 중국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중국에 파견된 조선 사신

18) “我國事大, 莫重譯學, 今司譯院生徒, 但習語訓, 不曉文理, 接待上國使臣及我國使臣入朝之日, 傳譯舛訛, 以致譏笑. 故嘗命擇衣冠子弟, 使習吏學, 稍通文義, 然不可無倡率之方. 前校理李邊, 已中文科, 猶嗜吏學, 以爲己任, 手不釋卷, 譯院學生皆願受訓, 宜以邊爲訓導, 使之表率唱勸. 然邊今方在喪, 未逾一年. ……”(세종 45권, 11년(1429년) 9월 6일(기유)).

중에서 특히 통역관들은 언어적인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 방면의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조선의 왕들이 중국의 정치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의 소통을 강화했다.<sup>19)</sup>

## 2. 經濟와 中國語 通譯

조선 초기 중국어 통역의 발전은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활발한 정치 외교적 교류의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양국의 빈번한 무역왕래와 물품의 유통 또한 중국어 통역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려 말에는 명나라와의 무역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지만, 조선이 건국되자 명나라는 국경의 민간 무역을 엄격히 규제했다. 따라서 조선과 명나라와 무역교류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 영향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특수한 형태의 官方貿易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중국어 통역관들이었다. 그들은 중국 상인들과의 거래에서 물건을 흥정하고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양국 간의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통역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살펴보면 시기적으로는 조선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말과 포목이 거래되었다.<sup>20)</sup>

명나라 무역에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明史》에 자주 보이는 외국의 “貢使”는 대부분 중국과 무역을 하는 貿易團이라는 점이다. 둘째, 명나라 太祖부터 명나라 조정은 줄곧 “厚往薄來”의 정책을

19) 高艷林, <明代中朝使臣往來研究>, 《南開學報》 2005년 제5기, 73쪽.

20) 사료에 따르면 조선과 명나라의 무역의 주요 품목은 말과 포목으로 명나라가 조선으로부터 사들인 말의 수는 67,128마리이고, 소는 11,000마리였다. 명나라는 이에 대한 대가로 緞子 60,372필과 布 274,356필, 絹 131,000필을 지불했다. 그 밖에도 대량의 약재가 거래되었다. 이처럼 거대한 교역량은 모두 112차례의 중국과 조선 사신이 참여했으며, 첨예한 이익이 따르는 거래에는 필수적으로 중국어 통역이 동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위의 책, 74쪽 참조)

취해, 외국에서 실제로 파견된 사신단들이 명나라 황제에게 바치는 方物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황제가 사절들에게 하사하는 것이나 국왕들에게 선물로 주는 예물들이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외국 商團들은 모두 정식 외교 사절을 사칭하여 황제에게 소량의 진귀한 것을 바치고 대량으로 實利를 챙겼다.<sup>21)</sup>

조선의 입장에서 명나라와의 朝貢 무역은 조선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경제적인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만큼이나 중요했다. 반면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명나라 초기의 조선에 대한 入貢을 보면, 種馬 50필을 제외하고는 따로 그 수량을 정해두지 않았다. 그래서 “物不在多, 惟在至誠”, “所貢方物不過表誠意而已”라고 했다. 명나라 太祖는 “每年數次將金銀器皿等物來貢獻, 這等禮物未免勞煩百姓, 況兼使臣往來經涉海洋, 甚是艱險”<sup>22)</sup>이라고 생각하여, 中書省에 명을 내려, 조선에게 “所貢方物, 止以所產之布十四疋足矣, 勿令過多”<sup>23)</sup>라고 했다. 朝貢을 바치는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명나라가 “厚往薄來”의 무역 정책을 통해 조선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이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명나라 경제에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양국의 조공무역이 조선 초기 통역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조선이 중국에 파견한 사신의 규모는 매우 방대했다. 그 使行員은 정치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무역 분야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는데, 통역은 중간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 사신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한차례 파견되는데 30여 명으로, 正使·副使·書狀官·通事로 구성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通事는 바로 통역관을 가리킨다. 《실록》에 기록된 조선 초기 명나라로 파견된 통역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 방면의

21) 黎難秋 주편, 《中國口譯史》, 青島出版社, 2002, 130쪽.

22) 《고려사·공민왕세가》22년 7월.

23) 臺灣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校勘 著, 《明太祖實錄》 권76, 홍무 5년 10월, 上海書店, 1982.

활동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하게도 역관의 활동에 “말 압령”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명나라에 바치는 조공품 중에서 말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조선 개국(1392)부터 세종 10년(1428)까지 36년간 명나라에 조공 무역한 말, 즉 명나라에 관 말은 총 5만 9천여 필이나 되었다. 이는 조공이 아니라 국제무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sup>24)</sup>

成宗 때 편찬된 《經國大典》 司譯院 條에는 정3품 司譯院 正을 수장으로 하는 司譯院 관직체계가 실려 있다. 司譯院에는 총 29개의 관직이 있었는데, 堂上官인 司譯院 正은 御殿에서 通譯을 담당하는 御殿通事가 맡는 자리였고, 역관은 押物도 맡았다. 押物은 사신 일행이 중국에 갈 때 진상하던 물품과 교역하는 물품 등을 담당하는 관원으로서 司譯院의 하급 역관이 맡았다.<sup>25)</sup> 太祖 때 6차례 말 압송이 이루어졌고, 太宗 8년부터 10년까지는 24차례나 말 압송이 있었다. 그 후 한동안 뜸하다가 세종 3년에 17차례, 세종 4년에 1차례, 세종 5년에 11차례, 세종 6년에 6차례, 세종 9년에 9차례가 있었다. 이처럼 빈번한 사신 활동은 역관의 활동이 그만큼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외국의 朝貢 사신들이 명나라에 도착하여 사신이 머무르는 숙소인 會同館에 들어간 후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었고, 규정에 따라 5일에 한 번씩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朝鮮과 琉球의 사신들은 예외였으며, 명나라 조정은 그들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었다.<sup>26)</sup> 명나라는 조선에 대해 사신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데 있어서도 특별히 관대하게 대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 양국 간의 무역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명나라 조정이 국가 차원에서 사무역을 금지시키면서 관방무역이 유일한 무역 수단이었던 상황에서 조선에 대해서 많은 우대 정책을 폈다. 따라서 무역 품목에 있어서도 귀중한 약재나 도자기 이외에

24) 위의 책, 47쪽.

25) 이덕일, 《조선최대 갑부 역관》, 김영사, 2006, 38쪽.

26) 王建峰, <明代會同館職能考述>, 《蘭州大學學報》(사회과학판) 제34권 5기, 2006년 9월, 103쪽.

도 중요한 서적이거나 군사적으로 필요한 화약 등을 거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사무역이 금지했지만, 당시 조선의 역관들이 사무역을 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잘 나타나 있다.

“任君禮를 저자 거리에서 <다섯 수레로> 轎刑에 처하였다. 군례의 아버지 任彦忠은 漢族으로, 譯官으로 개국공신에 참여하였던 고로, 군례도 忠義衛에 소속되었는데, 사람 된 품이 욕심 많고 야비하며, 역관으로서 여러 번 명나라에 사신을 따라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큰 부자가 되었으면서, .....”<sup>27)</sup>

任君禮의 부친이 譯官의 신분이면서 開國功臣이었음에도 불구하고 轎刑에 처해졌다는 것은 사무역에 대해 국가가 매우 엄중하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세종 16년 예조에서 승문과 제조와 더불어 세종에게 譯官에 대한 격려 권장책을 함께 협의하여 건의한 기록이 《실록》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전에는 통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역을 큰 利權으로 삼고는, 行役의 노고도 꺼려하지 않고, 앞을 다투어 그 업을 鍊修하고 서로 북경엘 가려고 경쟁을 하더니, 私貿易을 금지한 뒤로는 從事官으로 임명되면, 각가지의 이유를 내세워 이를 회피하고, 다시 그 업을 연수하려는 마음조차도 없다.....”<sup>28)</sup>

위의 기록을 통해 역관이 당시 무역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무역을 통해 많은 이권을 챙겼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27) “轎任君禮於市。君禮之父彦忠，漢人也。以譯語得參開國功臣，故君禮屬於忠義衛。爲人貪鄙，以譯語屢使上國，以致巨富，.....”(세종 11권, 3년(1421) 2월 18일(신해) 3번째 기사).

28) “前此譯語之人，利於貿易，不憚行役之勞，爭相鍊業，競欲赴京，自禁私貿易，若差從事官，則多般窺避，無復鍊業之心。.....”(세종 63권, 16년(1434) 1월 4일(임오) 4번째 기사).

명나라와 교역에 있어서 조선의 사신단에 역관이 따라간 것은 물론 명나라 조정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조선어 통역을 두었다. 명나라가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京師에 설치한 會同館에는 외국 사신들을 위한 통역이 배치되어 있었다. 조선 사신단이 방문하는 경우 會同館의 南館에 묵었으며, 관내에 조선어 통역관 다섯 명이 배치했다. 이는 양국관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통역이 차지한 비중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조선 초기 명나라와의 무역에 있어서 중국어 역관의 역할은 사무역을 담당하던 주체가 변하면서 통역이 더욱 발전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국가적으로 사무역을 금지하던 상황에서 세종 때까지는 正使와 副使가 여전히 사무역의 주체였지만 몇 차례 처벌을 받고서는 역관이 사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것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경제와 중국어 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 초기 官方 주도의 활발한 무역 형태는 국가 차원에서 대량의 통역을 양성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국가적으로 금지 되었지만 여전히 비중이 적지 않았던 사무역에서 담당하던 주체가 역관으로 바뀌면서 중국어 통역이 더욱 발전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되었다.

### 3. 文化와 中國語 通譯

조선 초기 정치 외교, 경제적인 배경 이외에 중국어 통역이 발전하게 된 세 번째 배경에는 조선과 명나라와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가 큰 작용을 했다. 조선은 건국 후 儒學을 국교로 삼고, 명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대국의 문물제도를 수입했다.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이었던 명나라는 넓은 국토와 풍부한 물자를 바탕으로 조선에 비해 문화적으로 매우 앞서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실리적인 이익을 위해 명나라와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했다.

명나라에 파견된 사신들 중에서 중국어 통역관들은 명나라에서의 활동

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들은 언어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중국인과 접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 사회가 필요로 했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적합했다. 문화 교류에서 역관들은 주로 서적을 輸入하거나 기술 또는 무기 도입 등을 도입하는데 많은 활약을 했다.<sup>29)</sup> 《실록》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 명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종 12년(1412)의 《실록》기록을 보면 議政府에서 醫學과 音樂, 譯學 등을 익히기 위해 직접 명나라에 유학을 보낼 것을 청한 기록이 있다. 그 밖에도 실제로 명나라에 파견된 사신을 통해 직접 서적을 구입하도록 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세종 17년(1435)의 기록을 보면 謝恩使의 通事였던 辛伯溫과 進賀使의 通事였던 許元祥·僕振 등이 北京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胡三省의 《資治通鑑》을 사 가지고 와서 세종으로부터 의복을 하사받았다는 기록이 있다.<sup>30)</sup> 그 밖에도 세종 17년(1435)에 沈道源과 중추원 부사 尹得洪이 세종 17년(1435) 8월 24일(계해) 1번째 기사에 형조 참판 南智를 보내어 북경에 가서 聖節을 사례하게 하면서, 책을 주청하거나 인쇄할 수 있도록 요청한 기록이 있다.<sup>31)</sup> 당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서적들은 통역관을 양성하는데 직접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국어 교육 분야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 중국의 韻書들이 수입되고, 중국의 音韻學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訓民正音의 창제로 이어지게 되면서 중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우리말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언어적 수단을 갖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중국어 通譯史에 있어서 조선 초기가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한글이라는 모국어 문자를 갖게 되면서 더욱 중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통역관들의 활약으로 들어온 명나

29) 白玉敬, 《朝鮮前期譯官研究》, 한국연구총서 제71집, 2006, 45-46쪽.

30) 謝恩使通事辛伯溫、進賀使通事許元祥·僕振等, 回自京師, 賜衣有差。以質得胡三省《資治通鑑》也。(세종 69권, 17년(1435) 7월 1일(경오) 2번째 기사).

31) 세종 69권, 17년(1435) 8월 24일(계해) 1번째 기사에 보인다.

라의 선진 문물과 기술은 조선의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다음의 기록을 보면 醫學 역시 명나라로부터 의존하는 바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황제가 우리 조정에 銅人圖를 주었다. 千秋使 吳眞이 京師에서 돌아왔는데, 禮部에서 咨文하기를, “국왕의 자문에 준하면, ‘우리 본국에 針灸方書가 적어서 移咨하니 奏請하여 銅人을 내려 주면 본받기가 편하고 도움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本部官이 聖旨를 받들었는데, ‘太醫院을 시켜 두 개를 그리어 저들에게 주어 가지고 가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태의원에게 이문하여 針灸銅人 仰·伏 2軸을 채색으로 그리어 吳眞에게 부치어 돌아가게 합니다” 하였다.<sup>32)</sup>

또한 문종 1년(1451) 通事 金璉가 올린 글에서도 명나라의 선진 기술과 정보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이 北京에 가서 石灰를 만드는 법을 물으니, 흙 속에 묻힌 黑靑石을 취하여 가마솥 안에 쌓아 놓고 3일 밤을 태우면 그 빛이 희고, 돌 성질이 유한 것이 더욱 희며, 쓸 때에 물을 부으면 곧 석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석회는 그 가마솥의 대·소에 따라 1백 석, 혹은 7, 80석, 혹은 30여 석을 취하는데, 가마솥의 모양은 우리나라에서 굽는 벽돌 가마와 같았습니다. 또 通州에 이르니, 배를 만드는 자가 있기에 신이 물은즉 대답하기를, ‘배의 틈을 熟麻로 막고, 또 석회를 桐油에 섞어 바르는데, 동유가 없으면 魚油나 麻油도 가하다’고 했습니다. 甲造船 같은 것은 곧 통주가 물이 알기 때문에 만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었던 石灰 만드는 법을 배워 온 기록과 배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는 기록을 함께 수록되어 있다.

32) 帝賜我《銅人圖》。千秋使吳眞回自京師，禮部咨曰：“準國王咨，該本國針灸方書鮮少，移咨奏請，給降《銅人》，取法便益。本部官欽奉聖旨：‘着太醫院畫兩箇與他去。’欽此，行移太醫院，綵畫針灸銅人仰伏二軸，就付吳眞領回。”(태종 30권, 15년(1415) 10월 23일(정해) 3번째 기사).

문종 1년(1451) 金宗瑞가 懸門의 설치에 대해 적당 여부를 의논했는데, 임금은 우찬성 鄭某의 말에 대답하기를 “通事 崔倫·康文寶 등이 중국의 懸門 체제를 가지고 오거든 다시 의논하자”라고 대답했다.<sup>33)</sup> 이는 당시 성문을 짓는데 통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정보를 입수했음을 알 수 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사회 각 분야에 중국어가 능통한 사람들이 활동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세종 13년의 기록에는 병력을 동원하거나 토지를 측량하는데 이용되었던 算法을 배우는 데에도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뽑아서 전문 지식을 익혔다는 기록이 있다.<sup>34)</sup> 이것은 조선 초기에 중국어 통역이 당시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이 명나라와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중심에는 역관들이 있었다. 오늘날도 선진국의 첨단 기술의 경우 쉽게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듯이 당시 명나라의 경우는 더욱 심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어에 능숙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과 명나라와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던 만큼 중국어 통역의 역할은 막중했으며, 이는 곧 중국어 통역 분야가 발전하는 필연적 계기가 된다.

## V. 결 론

예로부터 言語는 思想과 생각을 담는 體裁로, 個人이나 民族, 國家가 교류하는 과정에 매개체로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다. 특히 조선의 역사에서 중국어 통역은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외교 정치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와의 무역과 쌍방의 문

33) “然待通事(崔倫)[崔倫]、康文寶等, 齋中朝懸門體制而來, 更議之.”(문종 6권, 1년(1451) 3월 13일(임자) 7번째 기사).

34)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3월 병인.

화적 교류를 주도하여 명나라의 앞선 문물이 조선에 들어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은 명나라에 공식적으로 1,252차례의 사신을 파견했다. 이는 매년 평균 4.6차례를 보낸 셈으로, 이러한 수치는 외형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했는가를 보여주지만, 그 내면을 보면 중국어 통역이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중국어 通譯史에 있어서 조선이 차지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92년 7월 17일 왕위에 오른 李成桂는 그 이듬해인 1393년 9월 19일에 국가의 통역을 전담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인 司譯院의 설치를 명한다. 이는 당시 복잡했던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를 완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능통하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그 후 몇 차례나 정치 외교적으로 곤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중국어 통역이 기반을 잡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경제 분야에서 통번역은 정치 외교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명나라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사무역보다는 국가가 주도하는 관방무역이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양국 간의 무역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통역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특히 조선 초기 朝貢貿易이 중심이 되자, 사신단의 일행으로 파견된 통역관은 언어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서적이나 藥學, 醫學, 技術 등을 포함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시대적 요구는 중국어 通譯史에 있어서 조선 초기가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는 이유이다.

그렇지만 중국어 통역이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譯官이 가졌던 시대적 한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역관은 통역을 관장하면서 행정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서 했지만, 외교관계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신분적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관직을 제수할 때나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히 드러내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조선이라는 사회가 儒學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로서, 雜學에 속하는 통역은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21세기에 아직도 학계에서는 중국어 통역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향후 좀 더 많은 자료의 발굴과 通譯史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공시적인 연구를 통해 완전한 퍼즐이 맞추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1. Baek Okkyung. *A Study on Translators in the early Chosun Dynasty*, Series of Korean Studies No.71, 2006.
2.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Mingtaizu Shilu*, Shanghai Bookstore Publishing House, 1982.
3. Gao Yanlin. *A Study on the Envoys between Ming China and Choson Korea*, Journal of Nankai University No.5/2005.
4. James B. Palais. *A Search for Korean Uniqueness*, Harvard Journal of Asian Studies 55-2(December, 1995)
5. Lee Deogil. *One of the richest interprete in Choson.*, gimmyoung publishers, 2006.
6. Li Long. *Analysis the education of Chinese in Lee Dynasty during Ming and Qing Dynasty*, Qufushifandaxue Master's thesis, 2013.
7. Li Nanqiu. *Zhongguo kouyishi*, Qiangdao Publishing company, 2002.
8. Ma Zuyi. *Chinese Translation History*, Hunan Education Publishing House, 2006.
9. Wang Jianfeng. *Functions of Huitongguan of the Ming Dynasty*, Journal of Lanzhou University(Social Sciences) Vol.34 No.5/2006.
10. Wu Han. *Chaoxian lichao shilu zhong de zhongguo shiliao(No.4)*, Zhonghua Book Company, 1980.

Web site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DB of Korean classics  
(*Samguk Sagi, History of Goryo Dynasty,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wikipedia

<참고문헌>

- 1.白玉敬,《朝鮮前期 譯官研究》, 한국연구총서 제71집, 2006.
- 2.臺灣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校勘,《明太祖實錄》, 上海書店, 1982.
- 3.高艷林,〈明代中朝使臣往來研究〉,《南開學報》2005년 제5기.
4. James B. Palais, <A Search for Korean Uniqueness> Harvard Journal of Asian Studies 55-2(December, 1995)
5. 이덕일,《조선 최대 감부 역관》, 김영사, 2006.
- 6.李龍,《論明清時期朝鮮李朝的漢語教學》, 曲阜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 7.黎難秋 主編,《中國口譯史》, 青島出版社, 2002.
- 8.馬祖毅 등 著,《中國翻譯通史》, 湖南教育出版社, 2006.
- 9.王建峰,〈明代會同館職能考述〉,《蘭州大學學報》(사회과학판) 제34권 5기, 2006.
- 10.吳晗,《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제4책), 中華書局, 1980.

웹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위키백과

### <Abstract>

This has been studied on the meaning of Chinese translation history in the early era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synchronic perspectives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ranslation of the Chinese Language was well developed by the situations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refore, three (3) main aspects has been considered in the thesis. In politics, the Joseon Dynasty was one of the very important to the Ming Dynasty. Since the Joseon Dynasty's destiny was dependent upon the relationship with the Ming Dynasty which was a strong nation, it wanted to achieve political purpose through the translation. In addition, the Joseon Dynasty made profits throughout tributary and unofficial trade with the Ming Dynasty in economy. Translators in the official delegates from the Joseon Dynasty played an important roles in making revenues with the Ming Dynasty. And culturally, they contributed to importing the developed medicine and technology and books from the Ming Dynasty.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in translation, Training Center for Translation was established, and it also resulted in educating and producing the translators of the Chinese Language and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in the history of translation.

Key Words : 조선(Joseon Dynasty), 통역(interpretation), 조선왕조실록  
(Annals of Joseon Dynasty), 통역사(history of Interpretation),  
명나라(Ming Dynasty)

